

죽음과 종말

최영

I. 현대사회와 죽음의 배제

1. 죽음이 배제되는 이유들

- 1) 심리학적 원인
- 2) 세계의 탈신화화와 세속화의 영향
- 3) 현대 사회의 산업화, 개인주의화의 영향
- 4) 현대 사회의 가치관
- 5) 핵가족화의 영향
- 6) 현대의 병원 체제, 장례식의 상업화의 영향

2. 죽음의 배제의 결과: 죽음과 죽은 자들에 냉담한 사회

- 1) 현실에의 집착과 탐닉, 끝없는 자기추구
- 2) 죽음을 초래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한 무관심한 마음과 무관심한 삶의 태도, 무관심한 사회 분위기 형성
- 3) 무감각한 사회, 냉정하고 냉혹한 사회, 비인간적인 사회를 형성
- 4) 환경 파괴와 밀접한 관계

3. 죽음을 의식함으로써 얻게 되는 삶의 지혜

- 1)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겸손함(시 8:13-16, 욥 10:5, 전 12:1-7, 시 49:10-11, 전 5:16).
- 2) 삶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며, 삶의 매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
- 3) 참으로 가치 있는 일, 우리의 삶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에 눈을 뜰 수 있다(골 3:2, 엡 4:22-24, 막 8:35-37).
- 4) 이 세계 모든 사물들의 있음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으며, 그들의 있음 자체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 5) 이웃 사람들과 인류와 자연의 피조물들이 당하는 고통에 눈을 뜰 수 있고, 그들이 당하는 죽음의 위협을 함께 느낄 수 있다.

II. 부활절의 빛에서 바라보는 죽음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죽음만은 확실하다.”(*incerta omnia, sola mors certa*) 어거스틴은 이 말과 함께 이 세계의 모든 것은 항상 변화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삶의 깊은 진리를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체코의 개혁자들은 교회와 사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세상의 상태는 변화된다(*ecclesia et societas semper reformanda, status mundi renovabitur*)고 주장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사 40:6, 8).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이 세계에 속한 것들 가운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의 마음은 더욱 그러하다.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내일은 저렇게 생각한다. 이와 같이 세상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불확실하지만, 의심할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죽음이다. 죽음은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이요, 그 누구도 거부하거나 의심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사실이다.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 야고보는 이러한 인간을 잠깐 나타났다가 어느새 사라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약4:14).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죽는다. 이 일이 내일 일어날지 모레 일어날지 아니면 몇 년 후에 일어날지는 모른다. 그 죽음은 빠르고 쉽게 임할 수 있고, 혹은 느리고 고통스럽게 임할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죽는다. 매일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끝을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죽음은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죽음의 시간이 언제 닥칠 것인가는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죽음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 시간은 불확실하다.”(*mors certa, hora incerta*)

그런데 이 말은 단지 죽음의 시간에 대한 진술일 뿐만 아니라 죽음 자체의 신비에 관한 진술이기도 하다. 우리는 죽음이 언제 일어날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죽음의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죽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역사상 수많은 철인들과 문인들,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죽음의 정체를 규명하려고 했지만, 단지 죽음의 현상들만을 설명할 수 있었을 뿐, 궁극적으로 죽음의 정체를 속 시원하게 규명하지는 못했다. 우리 주변에 소위 “임사체험”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죽음 자체의 정체를 해명하는 이야기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단지 죽음에 근접한 체험을 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죽음이 죄의 “값”(롬 6:23)이며, 아담과의 연대성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라고 말한다(롬 5:12-21). 어거스틴의 원죄의 교리는 죽음과 죄를 단단히 결합시켰다. 불가타역 로마서 5장 12절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고전 15장 22절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한다. 이 같이 아담의 죄에 대한 징벌인 죽음은 아담의 모든 자녀들이 물려받게 되었다. 이 견해는 중세를 거쳐서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시대까지 지속되었다.

전통적인 개혁교회 교리는 죽음이 인간의 죄를 통해 세상에 들어왔다고 가르쳤다: 죄의 영적 죽음이 육체적 죽음을 낳고, 죽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와 불멸의 영혼이 분리된다. 보편 부활에서 육체와 영혼은 다시 결합되고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칼 바르트를 포함하는 현대의 개혁교회 신학자들은 죄와 죽음의 관계에 대한 고전적인 견해를 수정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대한 새로운 번역들은 유전적 불가피성을 제거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RSV, 개역개정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 죄의식, 그리고 죽음의 연결망에서 구원해주셨다.

헬라 교부가 사용한 예화를 빌면, 거대한 짐승으로 형상화된 죽음은 그리스도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와 대적하여 싸우다가 죽은 것은 죽음 그 자체였다. 그리스도를 삼키면서 죽음은 그에 의해서 정복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천하에 죄와 죽음, 어두운 악의 세력의 정체를 밝히고 멸하시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은 두려워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을 통해서 죽음은 이제 죄의 저주와 상관없는 “은혜로운 마지막”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육체적 몸은 죽을 때 기능을 멈춘다. 그 몸은 흠으로 돌아간다. 재에서 재로, 먼지에서 먼지로...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 우리 존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 죽음은 우리의 삶에 찍힌 마침표가 아니다. 죽음은 다가오는 생명 또는 영생의 온전함으로 이어지는 콜론(:)일 뿐이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 바울이 고전15:35-38에서 말하는 ‘부활의 몸’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된 썩지 않을 몸이다.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다(고전15:12-34).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다(고전 15:20). 그리스도를 따라 육체적으로 죽는 우리는 “영의 몸”(고전 15:44) 또는 부활의 몸으로 일으킴을 받는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며(고전 15:52-55) 그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체험한다.

그러므로 성서는 현실 인간의 운명에 대하여 결코 염세적이거나 비관적인 전망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덧없고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어 택하셨고(엡 1:4),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자 하셨고, 또 시간을 주셔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은 이미 우리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골 3:3).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과 종말에 관한 신약성서의 진술과 사도신조의 항목들은 기존의 역사적 개념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역사적인 것’, ‘신비적인 것’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종말에 관한 기독교의 메시지를 하나의 ‘신화’로 간주하고, 역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이 ‘신화’를 역사 자체로서 받아들이고 다른 모든 역사들을 신화라고 규정하든지, 아니면 기독교의 ‘신화’를 거절하고 역사에 대한 고전적인 개념에 머물든지 해야 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기독교회는 이 ‘신화’를 역사 그 자체라고 고백해야 한다. 교회는 이 신화에 의해 자신을 인지하고, 자신의 생명, 참된 현실을 인지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역사가들의 칼끝의 방향을 되돌려 놓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당신들이 신화라고 부르는 그것이 바로 역사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즉시 다음의 사실을 덧붙인다. 당신들이 역사라고 부르는 그것이 바로 신화이다! 만들어낸 역사인 신화는 인간의 운명이 그의 세상적인 영고성쇠에 종속된다고 상상하는 것이며, 만들어낸 역사인 신화는 하나의 원인의 직접적인 결과를 그것의 진리와 혼동하는 것이다. 유일한 참된 역사는 그 안에 교회가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역사이며, 그리고 그것은 역사 자체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역사의 신비로운 현실이다.”

신약성서와 사도신조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죽음이란 더 이상 없고, 세력을 떨치는 죄도 없다. 물론 우리 가운데 죽음, 죄, 악마는 계속 존재한다. 그러나 단지 정복된 것들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바르트는 이 변화된 상황을 체스게임의 비유를 통해 해명한다. 죄와 죽음, 그리고 악마의 상황은 이미 졌지만, 그 사실을 아직 인정하지 않는 체스게임을 하는 사람과 같다. “그는 게임의 형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한다. 벌써 끝났는가? 왕은 아직 움직일 수 있지 않는가? 그는 계속 시도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이제 승리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것은 정확히 죽음과 죄와 악마가 처한 상황이다. 왕은 꿈쩍 못하게 되었고, 게임은 끝났지만, 그러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직도 게임을 계속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끝났다. 옛 ‘시대’, 죽음과 죄의 옛 시

대는 지나갔고 게임이 단지 계속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고후 5:17).

그러므로 바르트에 의하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모르는 채 하는 것일 뿐이다. 부활절의 사신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할 수 있을 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실제로, 부활절 이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은 여전히 죽고, 싸우고, 죄짓고, 악마는 전과 같이 활동한다. 그러나 바르트는 부활절의 빛에서 볼 때, 이러한 생각은 거대한 환상, 인간의 슬픈 환상이라고 천명한다. 부활절의 빛에서 볼 때, 신화는 아직도 죽음과 죄가 결정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세력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악마의 죄사슬은 이미 끊어졌고, 죄와 죽음의 세력은 패배했다는 것이 진리이다.

Ⅲ. 죽음, 그러나 생명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의 복된 메시지에 근거하여 죽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가 부활절에 서로에게 ‘기쁜 부활절이 되세요!’ 혹은 ‘즐거운 부활절이 되세요!’라고 인사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죽음 - 그러나 생명’이라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일어났던 아주 위대한 일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 두 단어는 신약성서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제시된다. 디모데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딤후 1:10).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 5:24).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바르트는 여기서 ‘그러나’ 라는 저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저 말씀들에서 죽음과 생명은 단순히 열거되는 두 개의 단어나 개념 혹은 이념이 아니다. 이 단어들이 설명하는 것은 하나의 길 또는 사건이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 곧 부활절 아침에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사신 사건이다. 부활은 그 때 단 한번, 그에게서 일어났다. 하지만 부활은 이미 그 때에 우리를 위해 일어났다. 따라서 그때에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은 또한 우리의 사건이다. 예수는 사망하셨으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우리는 믿는다.

그런데 바르트는 여기서 또 저 일의 ‘순서’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서는 “생명 다음에 사망이 왔다”거나, “생명을 넘어 죽음을 향해 간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실로 우리의 인생 여정은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는 앞서 말했듯이 생명에서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우리는 생노병사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조금 행복하기는 하지만 훨씬 자주 불행하다. 선한 일을 조금 행하지만 악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행한다. 마지막에는 결국 죽어서 어느 공동묘지에 묻혀 사라지거나,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져버린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여정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여정은 그와 정반대방향으로 진행한다. 부활절의 역사는 죽음과 무덤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생명’이 온다! 그리고 전진이다. 결코 되돌아갈 수 없는 일방통행로를 통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전진한다. 한 부활절 찬송은 “그것은 죽음과 생명이 싸운 하나의 놀라운 전쟁이었다. 하지만 생명이 승리를 거두었고 죽음을 삼켜버

렸다. 하나의 죽음이 다른 죽음을 어떻게 삼켜버렸는지를 성서는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라고 노래한다. 바로 이것이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며, 우리의 부활을 이미 예기하고 있는 일이다.

IV. 죽음 이후: 영혼불멸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우리는 칼빈이 말했듯이 “죽음에 둘러싸인 삶” 속에서 살아간다. 인간은 이 종말에 의해, 즉 우리의 존재에 반대하여 계속 제기되는 모순에 의하여 운명이 정해진, 이러한 위협 아래 있는 존재이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즐겁게 지내길 바라며, 즐겁게 지낼 수 있지만,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워지는 우리의 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평화가 있지만, 오직 투쟁 속에서만 지속되는 평화이다. 생명이 있지만,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생명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함께 있지만, 언젠가 서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 죽음은 우리의 삶 전체 위에 진을 치고 있다. 이것이 죄의 대가이다(롬6:23). 계좌는 단했고, 관과 부패가 마지막 말이다. 싸움은 결정적이며, 우리에게 불리하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다.

그러나 우리는 앞을 바라본다. 이 생에서 우리가 바라는 기독교적 소망은 무엇인가? 죽음 이후의 삶인가, 죽음과 분리된 한 사건인가, 나비와 같이 무덤 위를 날아다니며, 어딘가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여전히 보존되는 영혼인가? 이방인은 이같이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한다. 이러한 사생관은 영혼불멸의 교리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성서기자들이 가르친 것이 아니고 기독교적 소망도 아니다. 이 교리는 기독교회가 생성된 당시 헬라세계와 고대 세계의 동양종교들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것이었다. 초대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서 몇 사람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았고 그런 관점에서 성서를 읽었으며 그것을 교회의 사상 안으로 끌어들이 소개했다. 그 때 이후로 이런 사상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내려왔다. 칼빈도 그것을 받아들였고(*Inst.* I.15.2,6), 개혁교회의 정통적 고백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였다(스코틀랜드 신앙고백 1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4).

이 교리에 의하면 나의 육신은 죽지만 나 자신은 실제로 죽지 않는다. 나의 육신은 단지 참된 나 자신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육신은 내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잠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육신적인 집에 지나지 않는다. 혹은 내가 잠시 갇혀 있는 이 세상의 육신적인 감옥에 지나지 않는다. 참된 자아는 내 영혼이다. 하나님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불멸성을 나누는 나의 영적인 부분이 바로 나의 참된 자아이다. 이 불멸하는 영혼은 내 육신이 죽을 때, 나의 죽을 육신으로부터 탈출하여, 내가 본래 속해 있었고 내가 왔던 곳인 영적인 영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가현설 참고).

그러나 만일 우리가 개혁교회 전통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오직 성서에만” 두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혼불멸의 믿음에 기초하는 미래에 대한 전통적 희망을 거부해야만 한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영혼불멸의 교리는 비성서적이다. 성서에 의하면,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가운데 있는 내부의 신성이 아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일 뿐이다.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이 떠나버린다는 것은 옳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불멸하는 신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를 떠나서 다른 어느 곳에 가서 산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것은 생명이 우리를 떠난다는 것을 뜻하며, 우리의 삶이 끝을 맺게 되었고,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 따르면, 내 영혼은 내 육체와 함께 똑같이 인간적이고 창조된 것이며 유한한 것, 즉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혼은 단지 우리

육신의 생명일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불멸성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죽음은 실제적이고 전적이며 끔찍한 것이다. 성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죽음을 단지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에 불과한 어떤 것처럼 맞이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히 5:7), 그리고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는 고뇌와 함께(눅 22:44) 죽음을 대면하셨다. 신약성서 어디를 보아도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의 영혼이 무덤에 있는 그의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고 암시하는 부분이 없다. 성서에서는 그분이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정말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다. 바울도 죽음이라는 것을 반겨 맞이할 “친구”처럼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에게 죽음은 적, 즉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히 파괴될 “최후의 적”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고전 15:26). 성서는 영혼불멸의 교리가 말하는 것과는 달리 죽음의 공포를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다. 죽음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끝을 의미하는 한 그것은 무서운 것이다.

3) 성서에 따르면 우리의 희망은 인간존재의 불멸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즉 무에서 유로 생명을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에 있다. 신약성서는 이점에서 분명하다. 하나님은 홀로 불멸성을 소유하신 분이시다(딤후 6:16).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불멸성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롬 2:7). 성서적인 소망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그로써 우리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이유이다.

4) 성서는 육체가 열등하다든지 쓸데없는 껍데기나 우리가 지금 갇혀 있어서 그로부터 해방되기를 그토록 고대하는 감옥과 같은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성서는 우리가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삶도 뜻하셨고 축복하셨다고 가르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에 대하여 성서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삶에서 영혼이 해방되어 어떤 높은 곳이나 좋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을 가진 영혼과 영을 가진 육체로서 우리의 전체적인 인간존재가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에게서도 마찬가지였다. 신약성서는 예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의 육체를 떠나서 본향 집으로 가셨다고 말하지 않는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을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셔서, 제자들이 이전에 알았던 지상의 예수와 같은 바로 그 예수(정확히 말하면 변화된 ‘새로운’ 육신의 예수)가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갔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리란 것을 믿는다. 우리는 우리의 별거벗은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될 최후의 황량한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미래를 고대한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든 아니면 다가올 세계에서의 삶을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의 육체(혹은 다른 사람들의 육체)를 무시하는 것은 비성서적이고 비기독교적이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의 죽음 없는 영성에 있지 않고,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V. 몸의 부활

1.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단순히 이것은 현재의 우리 신체적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거나 부활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뜻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육체들이 변형되고 못쓰게 될 것을 잘 알고 있듯이 성서의 저자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죽은 이후에 어떠한 경우라도 그 육신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 갈 것”을 알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애써 설명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온전한 “영의 몸”(고전 15:42-44)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또한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좋은 단서가 예수에게 일어났던 일이라는 그 법칙을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부활한 “영적” 육체라는 것이 그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나셨을 때 잠긴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실 수 있는가 하면(요 20:19),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요 21:12). 단정컨대 우리도 천국에서 다른 사람들을 알아볼 것이다. 우리의 몸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제와 사랑의 온전함을 체험하는 일에서 지금처럼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에 대한 복음서 이야기들에 따르면(마 28:9-10; 눅 24:13-50; 요 20:11-29; 21:3-13), 제자들이 본 예수는 그들이 전에 알았던 생전의 예수와 같은 분이였다. 그는 몸이 없는 유령은 아니었다. 그는 걷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만질 수도 있는 분이였다. 그는 육체를 갖고 계셨다. 그러나 그 육체는 좀 다른 신비한 육체였다. 그의 육체는 변형되어서 심지어는 그를 가장 잘 알았던 자들조차도 못 알아 볼 때도 있었다. 그는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기도 했고, 문이 잠긴 방에 나타나기도 했다. 이 이상한 이야기들은 어디를 봐도 거기에서는 지상의 육체적 예수와 부활을 하신 예수, 이 둘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모두를 말하고 있다. 그는 다른 방식으로 전과 동일한 분이셨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영의 몸”일 것이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혼 불멸에 대한 몇몇 교리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마치 바다로 돌아가는 물방울처럼 어떤 우주적 영혼 따위의 것이나 영적 영역 안으로 녹아들어 가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다르기도 더 좋은 방식으로 우리는 지금 개개의 인간으로서 여전히 있을 것이며 영원한 “거룩한 공회” 안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과 또한 우리보다 나중에 올 사람들을 포함해서)과의 진정한 개인적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언제 우리의 부활이 일어나는가?

성서는 이 질문에 대해 두 가지 다른 대답을 준다. 한편 우리는 죽자마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예수는 죽어가는 강도에게 이렇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다른 한편 바울은 역사

적 종말에 “일반적 부활”이라고 나중에 일컬어진 그 때에 모두가 동시에 부활하기까지, 죽은 자들이 기다리는 그런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전 15:51-52; 살전 4:13-18).

고전적 개신교 전통에서는 영혼의 불멸이라는 교리와 육체적 부활이라는 교리를 섞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의 운명을 정해주신다. 우리의 영혼은 곧장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반면에 우리의 육신은 무덤 속에 남는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신은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위해 우리 영혼과 다시 합해지고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결정을 받는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4). 이러한 설명은 다음 몇 가지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영혼과 육체의 분리는 비록 그것이 잠깐이라 할지라도 비성서적이다. 둘째, 만일 의인의 영혼과 악인의 영혼이 그들의 죽음 이후에 곧장 영원한 곳으로 가도록 이미 결정되었다면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이 불필요하게 된다. 왜 굳이 심판을 반복해야 하는가? 셋째, 전통적인 설명은 시간과 영원이라는 범주를 혼동하고 있다. 죽은 이후의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인위적인 범주를 벗어난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구분과 이것들 사이의 시간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 성서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같다”(벧후 3:8)는 말로써 이미 이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시간적으로 크게 구분되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금”-여기에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다. 넷째, 비록 전통적인 설명이 미래에 대한 신약성서의 두 가지 표현 모두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신약성서 그 자체에서는 그 두 가지를 혼합하거나 어울려 놓으려 하지 않는다. 도리어 신약은 어쩌면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것 같은 이 두 가지를 그냥 그런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어, 도대체 언제 어떻게 부활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인간의 육체적 죽음과 최후의 심판 사이의 시간에 죽은 사람의 “중간적 상태”라고 하는 것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거나 알기 위해서 비성서적인 방식으로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마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하시는 다가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근거를 둔 것이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죽음에 임하는 바로 이 날에 우리는 일으키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상에서 인간 삶의 일부분인 슬픔과 고통, 고난 그리고 부정의가 단번에 영원히 끝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끝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있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그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실 것이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역시 그 때까지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 때가 오기까지는 이미 죽어서 하나님과 영생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시간의 중간”에서 사는 것처럼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여전히 어느 누구에게도, 어디에서도 더 이상의 애곡이나 울음, 고통과 죽음이 없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계 21:4).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가 회복되어서 그들 개인의 영원한 행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모든 창조물들의 회복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때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VI. 현대인과 종말

1. 종말

현대인은 고대인들이 가졌던 마지막 심판의 두려움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듯하다. 루터의 물음(내가 어떻게 자비로운 하나님을 발견할 것인가?)도 분명히 현대인을 더 이상 동요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인은, 비록 얼핏 보기에는 기독교의 종말론과 함께 시작할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일종의 “세속적 종말”을 가지고 있다. 현대인은 물론 하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책임을 지기 위해 비어 있는 심판석 앞에 서 있다. 그는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무명으로 남아 있는 ‘슈퍼 에고’(초자아)로부터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현대인은, 비록 심판의 차원을 달아버렸지만, 거룩한 위압 아래에 서 있다. 현대인은, 비록 종교적으로는 음치지만(K. Tucholsky), 세속적 종교성을 갖고 있다.

이는 문학의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된다. 카프카는 그의 소설 『성(城)』과 『심판』에서 “K”,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삶과 죽음의 알지 못하는 중심에서 책망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녹초가 되게 만들어, 그는 결국 그것 때문에 (현대의 기술지배?) 파멸하고 만다. 카프카적 종말론의 확실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세계심판은 비둘기 걸음처럼 조용히 음험하고 눈에 띄지 않게 오며, 묵시적 광음과 함께 오지는 않는다. 그것은 소리 없이 그물처럼 우리에게 덮쳐질 것이며, 눈사태와 같이 우리의 세상 안으로 무너져 내리지는 않는다.

샤르트르와 까뮈는 전체주의적 국가에서 심연으로부터 올라온 묵시적 야수를 보았다. 샤르트르는 『파리떼』와 『토티바퀴 속에서』에서, 까뮈는 소설 『페스트』와 『계엄상태』에서, 어떤 도시에서 “검은 손톱 날을 가진” 왕이 명단의 순서에 따라 모든 이들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을 그렸다.

두 소설가는 종말을 세속화했다. 까뮈에 의하면 “마지막 심판”은 더 이상 기대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매일 일어난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에 대해 내리는 무자비한 심판 속에서 일어난다. 샤르트르에 의하면 “폭력, 화형식, 달군 석쇠의 고문”은 동료인간들의 지옥에 대한 “우스개 소리”이다. “지옥, 그것은 바로 남들이다.” 세속적 종말론의 단호한 대표자는 『고도를 기다리며』의 저자 베케트이다. 그는 거의 소종파와 같은 호소력을 가지고 무의 재림을 설교했다.

대담한 필치로 소름끼치는 미래적 환상을 우리 세계의 화폭에 그린 오웰의 미래소설 『1984년』도 세속화된 종말론들이다. 여기서 오늘날의 공상과학 이야기의 천박한 미래학도 지적될 수 있겠다.

현대인은 앞을 향해 열려 있다. 그러나 그는 희망보다는 불안 속에 있고, 이 불안은 그의 “기본감정”이 되어 있다. 그는 질병, 암, 노화, 죽음, 생활, 미래, 과거, 원자폭탄, 기술과 그 가능성들, 인간들, 정치세력들, 전체주의적 체제, 무와 공허, 그의 양심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불안들은 단지 “대상이 없는 더 어마어마한 불안으로부터 애써 눈을 돌리려는 올가미”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 불안의 대상은 실로 공포와는 달리 불분명하고 불확실하며,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인을 떨게 하는 심판석은 항상 다른 것들에 의해 차지되고 있고, 매우 종종 바뀌지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현대인에게는 비어 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공포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이름 없는 것(X)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으며, 그는 종말론적 의식은 없지만, 기독교의 종말론과 이어질 수 있는 종말론적 잠재의식을 지니고 있

다. 비록 안테나와 전파는 서로 간에 혼동되지 않아야겠지만, 현대인은 세속적 종말론에서 기독교의 종말론을 수신할 수 있는 소위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 만약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와 2장 14절 이하에서 보듯이, 비기독교인들도 하나님과 그의 요구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현대인의 세속적 묵시록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과 그의 심판을 재인식하고, 현대인의 뒷덜미를 잡고 있는 익명적인 그 무엇 속에서 숨어 있는 하나님을 재인식하며, 현대인의 세속적 종말론의 일상적인 은밀한 형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베일을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비어 있는 심판석 앞에 설 수 있겠는가라는 현대인의 질문 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설 수 있겠는가라는 기독교인의 질문이 숨겨져 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삶과 그 삶의 한계상황, 미래, 과거, 세상, 동료인간, 나 자신에 합당할 수 있겠는가? 라는 현대인의 질문 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합당할 수 있겠는가? 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원초적 질문이 숨겨져 있다. 교회는 우리 시대의 인간 앞에 심판석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는 이미 그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회는 현대인 앞에 있는 빈 심판석에는 그를 용서하고 방면하는 그리스도가 심판받은 심판자로서 앉아 있다는 것을 그에게 해명해주어야 한다. (칼빈, 칼 바르트 등등). 현대인은 자책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용서와 방면은 그에게 기독교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며, 현대인은 법정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종말론은 그에게 실존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

무엇이 일어나든, 그분은 올 것이다! 만일 종말이 시간화되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당대의 상징들로서 표현되게 마련이다. 성서시대에는 성서시대의 인간들에게,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의 인간들에게 그때마다의 상징들이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적 종말론의 시대 제약적 상징들은 아마도 오늘날의 세속적 종말론과 우리 시대의 내재적 종말론의 상징자료에 의해 대치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종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종말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결정적인 것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느냐가 아니라, 그가 올 것이라는 사실이다. 결정적인 것은 오로지 근본적으로 모든 마지막 일들이 걸려 있는 마지막 일, 즉 그리스도가 심판자와 구원자로서 올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심판받은 심판자로, 희생당하였기 때문에 승리한 자로서(*victor quia victima*)로서 올 것이다.

2. 천년왕국설

천년왕국설(millennarianism)에는 세 가지 주요 입장이 있어왔다. ‘천년왕국설’이란 말은 계시록 20:1-10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에 대한 언급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또한 ‘1,000년’을 뜻하는 헬라어 ‘킬리오이’(chilioi)에서 따와 ‘킬리아즘’(chiliasm)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주요 견해는 초대 교회 시절 기독교인들이 미래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숙고하면서 시작되었다.

‘전천년왕국설’(premillennialism)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년 통치를 시작하시기 전에 지상에 돌아오실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의 오심이 천년왕국의 ‘앞’에 있다는 것이다. 천년 통치는 문자 그대로 예수께서 물리적으로 지상에 계시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시기이다. 전천년왕국설의 주창자들은 복음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수께서 언제든지 돌아오시리라는 것을 대비하고 있다.

‘후천년왕국설’(postmillennialism)은 예수의 지상 재림이 천년간의 특별한 지상 통치 후에 발생하리라는 입장이다. 그의 재림이 자신의 천년 통치 ‘후’에 있다는 것이다. 통치의 기간은

복음의 전파, 많은 사람들의 복음 수용, 악과의 싸움 등으로 특징된다. 후천년왕국설의 주창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세워 나가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강조한다.

‘무천년왕국설’(amillennialism)은 ‘천년’의 이미지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것이 교회 내에서, 그리고 역사를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4세기에 어거스틴에게서 시작되었다. 무천년왕국설은 악과 싸우는 교회의 계속적 투쟁과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마 이 견해가 그동안 대부분의 장로교인들이 취해 온 입장이었을 것이다.

어느 한 천년왕국설이 장로교의 ‘유일한’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기독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장로교인들도 이 점에 있어 다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떤 기독교 집단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결코 한 의견이 절대화되어 신조를 위한 필수 조항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3. 마지막 구원의 문제

기독교전통은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게 된 구원의 범위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계속해왔다. 이 논쟁에서는 신약성서에 근거하는 두 개의 중심적인 가정들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첫째,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 의지에 대한 주장. 둘째,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 가능하다는 주장. 구원의 범위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은 다음 세 가지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보편주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선포를 들었는지 혹은 그것에 반응했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견해는 기독교 전통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 의지에 대한 강한 확신과 모든 사람의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실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견해의 가장 중요한 초기 주창자였던 오리겐은 그의 저서 『첫 번째 원칙들』(*De principiis*)에서 이 견해를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어떠한 형태의 이원론에 대해서도 깊은 의심을 갖고 있었다. 즉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한 두 절대적 권세의 존재를 인정하는 어떠한 신념 체계도 그는 의심했다. 이 같은 신념은 다양한 형태의 영지주의의 특징이었으며, 동부 지중해 세계에서 2세기 후반에 매우 위세를 떨쳤던 것이다.

오리겐은 하나님과 사탄이 저마다의 왕국을 영원히 통치한다는 사상을 거부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악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리고 피조물들을 그 원래의 형태로 회복하실 것이다. 그 원래의 형태 속에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회복론적인 구속론에 근거하여 피조세계의 최종적으로 구원된 모습은 ‘지옥’이나 ‘사탄의 왕국’을 따르는 어떠한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연합으로 인간이 회복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이 행복의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개념들이 20세기 가장 주목할 만한 신학자 칼 바르트에 의해 발전되었다. 구원과 은총에 관한 그의 교리들의 관계를 더욱 철저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예정에 관한 그의 교리의 정황 속에서 그의 접근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바르트는 개혁교회의 예정론을 자신의 신학적 정황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한다. 그의 예정에 관한 주장은 다음 두 개의 중심적인 확증 위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는 하나님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된 인간이다.

이 강력한 예정의 기독교적 설정은 예정론에 대한 그의 분석 전반에 걸쳐 유지된다. “예정론의 가장 단순하고 가장 포괄적인 형태 안에서, 예정론은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일치한다. 그러나 선택의 개념은 선택자와 피선택자에게 이중의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무엇을 예정하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바르트의 대답은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데, 그중 다음의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과 친구이자 동료가 되시기로 결정하신다.” 하나님은 자유롭고도 주권적인 결정으로 인간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바르트는 인간의 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을 확신한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의 구속을 위해 그리스도를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헌신을 보여주시기로 결정하신다. “성서에 따르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안에서, 그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인간의 구속을 위한 그 행위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자기 선택의 표현이다.

셋째, 하나님은 구속의 고통과 대가를 전적으로 견디시기로 결정하신다. 하나님은 골고다의 십자가를 왕좌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 모두를 특별히 고통 당하심과 죽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 자기 겸손과 자기 비하의 길을 택하셨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의 판단의 부정적인 면들을 취해 가시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절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거절하신다. 바르트는 죄인들 위에 떨어져야만 했던 예정의 부정적인 면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자 선택당하는 인간인 그리스도에게 직접적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죄의 불가피한 결과인 ‘거절과 저주와 죽음’을 견디기로 정하셨다. 그리하여 ‘거절은 다시는 인간의 몫이나 인간의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는 죄악된 인간이 반드시 견뎌야 할 것을 견디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다시는 그것을 견딜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

예정이 부정을 포함하는 한, 그것은 인간에 대하여 말해진 부정이 아니다. 예정이 배타와 거절을 포함하는 한, 그것은 인간에 대한 배타와 거절이 아니다. 예정이 파멸과 죽음으로 향하는 한, 그것은 결코 인간의 파멸과 죽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인간의 편에서 ‘저주에의 예정’의 어떠한 관념도 다 제거한다. 저주로 예정된 오직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는 ‘영원부터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기도 뜻하셨다.’ 이 접근의 결과는 명확하다. 상반되는 모든 모습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저주받을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불신까지도 넘어서며 은총은 승리할 것이다. 바르트의 예정론은 인간의 거부에 대한 가능성을 제거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 거부의 형벌과 고통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거부하는 다시 인간의 몫이 될 수 없다. ‘은총의 승리’에 대한 그의 특별한 강조를 고려할 때, 바르트의 예정론은 인간의 보편적 회복과 구원을 가리키고 있다(거부된 자들, 배교자, 적그리스도의 운명은? 은혜의 쓰나미, 은혜의 핵주먹!!! 저들의 운명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주권, 의지에 달려있다.)

또 이와는 다른 접근이 1960년대에 활동하던 영국의 진보주의 신학자 존 로빈슨의 저술들에서 발견된다. 특히 그의 책 『마지막에 하나님께서』(In the End God, 1968)를 보면 로빈슨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고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롭고 은혜스러운

향복을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랑을 상상할 수 있는가?” 전능한 사랑에 대한 이와 같은 관념은 로빈슨의 보편주의에 중심 개념의 기능을 한다. 마지막에는 사랑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지옥의 존재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사랑의 우주에는 공포의 침실을 허용하는 어떠한 천국도 있을 수 없다.”

2) 오직 신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입장은 구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가장 우세를 떨치고 있는 입장이다. 초대 교회에서 이 입장의 가장 열렬한 옹호자는 어거스틴이었는데, 그는 구원을 위한 선제 조건으로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오리겐과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거스틴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조건을 믿음으로 강조하는 신약성서의 여러 본문들을 인용했다. 그러한 본문의 전형적인 예가 요한복음 6장 51절이다. 여기서 예수는 자신을 만약 먹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떡으로 가리키고 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 입장은 중세 대부분의 저술가들에 의해 유지되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믿음의 행위가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견해는 그 시대의 저술들 속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으며, 특히 알리게리(Dante Aligheri)의 정교한 저술인 『신의 코미디』에서 그 반향을 발견할 수 있다. 단테는 『낙원』 제19편에서 믿음이라는 기독교의 선포를 듣거나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일어날 일에 관한 질문을 다루고 있다. 주어진 답은 미묘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필요에 대한 확증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높은 황제의 통치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전이나 후에도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오를 수 있는 이가 없으리라

종교개혁 시대에 이 입장을 열렬하게 지지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존 칼빈이었는데, 그는 경건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취지를 가진 그의 동료 개혁자 츠빙글리의 견해를 배제했다. “더욱 지극지극한 것은,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성서가 가르치고 있는 분의 은총 없이, 불경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 놓으려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저술가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성서의 주장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어거스틴과 칼빈은 그러한 본문들은 사회적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니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구원은 모든 국적들, 문화들, 언어들, 지리적 지역들, 그리고 직업들을 포용한다. 이것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구속론적으로 동등하다.

그러나 이 접근의 수많은 수정판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구원받기 위해 전적으로 기독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필수적인가? 이 질문은 선교와 복음 전도에 관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며,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존 웨슬리는 ‘믿음에 관하여’라는 설교에서,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를 주장했지만, 이 믿음이 성격상 명백히 기독교적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것들에 대한 거룩한 확신인데, “이것은 가장 초보적인 상태 속에

서도 그것을 소유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의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에 속한 사람이든 그와 같이 믿는 한 누구라도 용납된다고 사도는 선포한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유일신 신앙에 반하여 구체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이점은 무엇인가? 웨슬리에 따르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인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받은 삶의 충만한 유익들을 성취해야만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다. 둘째, 그들은 전적인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 확신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근거 위에서만 가능하다.

20세기 문헌 비평가이며 변증가인 C. S. 루이스는 이와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순전한 기독교』(Mere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그는 선과 진리를 쫓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표면적인 지식이 없을지라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루이스는 현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자신의 접근을 다른 종교들을 포함하는 데까지 확장시킨다. “다른 종교들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영향력에 이끌림을 받아, 자기들의 종교가 기독교와 일치하는 부분에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기독교를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여기에는 예수회 신학자인 칼 라너의 저술들과 일치하는 평행들이 있다.

3) 특별한 구원: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접근은 제한된 대속 혹은 특별한 구원 등 여러 가지로 불리는 것이다. 이 접근은 개혁교회와 관련을 맺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개혁 계통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교리는 개혁교회의 예정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접근의 역사적 기원은 9세기, 오르바이스의 고데스칼(Godescalc of Orbais)의 저서에서 발견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리스도가 모든 이들을 위해 죽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모든 이들이 구원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유효성에 대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한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가 구원받을 자들만을 위해 죽었다면, 그는 모든 면에서 그의 임무를 성공하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오직 구원받을 자들만을 위해 죽은 것이다.

이와 관련된 주장의 줄기들이 16세기 이후, 특히 17세기에 발견된다. 특히 청교도 계층에서 이 시기에 등장한 교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오직 선택된 자들을 위해 죽었다. 비록 그의 죽음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만, 그것은 오직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유효하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공허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가 구원하기 위해 죽은 모든 이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 접근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논리적인 통일성은 가지고 있지만, 비평가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신약성서의 주장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